



◀ 14일 개원한 길상사는 설법전을 후불탱화대신 석굴암 10대제자와 관세음보살상을 찍은 사진을 가로 62cm 세로 150cm로 확대해 병풍처럼 붙인 것이다.

▶ 선덕사 후불탱화에는 우리나라 역대 14명의 고승과 발을 길고 트랙터를 모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법당 장엄도 현대화 '붐'

14일 개원한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는 설법전을 후불탱화대신 대형 사진 판넬로 장엄했다. 석굴암 10대제자와 관세음보살상을 찍은 사진을 가로 62cm 세로 150cm로 확대해 병풍처럼 붙인 것이다. 또 지난 10월 8일 점안식을 가진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의 극락보전 후불탱화는 기존의 소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삼존불을 중앙에 놓고 우리 겨레의 위대한 선지식들인 원효 의상 자장스님에서 만해스님까지 14명의 고승들을, 아랫부분에는 발을 길고 트랙터를 모는 농부들을 그렸다. 사찰의 법당은 거의가 중앙에 불

길상사 사진판넬 병풍처럼

선덕사 백두산천지 배경 탱화

불광사 금강경 경구동판 벽장엄

한마음선원 천만부처님 먹그림

보살을 모시고 후불탱화를 봉안하며 탱화는 전통적으로 종이나 비단에 부처님과 각 보살, 아라한, 금강역사 사진화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채색한 영산회상도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이 법당을 장식하는 탱화가 과감히 생략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고, 탱화를 봉안하더라도 내용에 현대적 의미를 가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특히 도심 사찰에서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길상사 선덕사 외에 석촌동 불광사(주지 운암), 역삼동 강남보

교원(원장 성열), 동선동 삼선교원(원장 지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각 지원, 양평 법화사(주지 현관), 진해 성주사(주지 지상), 충주 군법당 환용사,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 등이다. 불광사는 대웅전의 벽을 금강경의 경구를 동판에 새겨 장엄했다. 강남포교원은 지하 법당의 본존불 뒤를 비천상과 이차돈 순교상을 조각해 장엄했으며 세 벽면은 탄아심경 등 여러 경전에서 뽑은 글귀를 동판에 새겨 붙여놓았다. 삼선교

원의 법당 천수관음보살의 뒤 전체 벽면은 갈색의 FRP로 만든 테라코타 관음상 천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음선원은 부산동 전각 14개 지원과 미국등 8곳 해외지원의 법당을 먹으로 그린 천만부처님 화엄법계도(허허당스님작)로 장엄하고 있다. 통나무법당으로 유명한 법화사는 역시 천수관을 뒤 벽면 전체에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보여주는 채색 부조를 봉안해 놓았다. 성주사는 한지를 이용해 흙을 섞은 분재로

채색한 지붕(紙佛) 부조 탱화를, 환용사는 검은 비단에 보살상과 주악을 연주하는 천녀, 그리고 날아가는 여러대의 비행기 모습을 그린 후불탱화로 공군법당임을 알려주고 있다. 보광사는 관음전 외벽 중앙에 관세음보살과 양옆으로 농민 학생 노동자 전경 등이 어깨동무를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민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같은 후불탱화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사찰이 도시에 위치함에 따라 법당의 구조자체가 전통사찰과 같은 장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과 스님들과 신도들의 변화된 취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학교(동국대 미술학과)는 "불상 불화는 그 시대 사 람들을 감화시키는 방편으로 종교적 이념이 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의해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11)

만물이란 원래 헛그림자

萬物由來只一幻 만물이란 원래 하나의 헛그림자
(만물유래지일환) 靜觀無物不歸空 고요히 살피면 빈 것으로 가지 앎을 없다
(정관무물불귀공) 雖歎失脚墜毫末 비록 잠잠히 헛디러도 터럭 끝의 차이인데
(수묵실각차호말) 異見紛紜各不同 다른 견해로 어지러이 감지 앎다 떠드네.
(이견분연각부동)

위 시도 묵암대사의 시로 '사물을 살핀다(觀物)'라 제한 시이다. 사람의 삶이란 싹든 좋은 대상의 경계와 직면하여 살게 되어 있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첫 단계야말로 우리가 대상의 사물을 관찰하는 행위이고 이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을 우리는 만물이란 한다. 만물은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고서 이르지아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첫 구절부터 이 만물을 허깨비에 불과한 그림자라고 했다. 이 말은 다음에 오는 차별이 없다는 말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범상인이 사물을 볼때 차별이라는 구분이 있음으로 해서 살피려 하고 그 차별에 의해서 존재를 인지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오해를 치유하는 방편을 제시한 셈이다. 송나라 때 유학자의 시구에 '만물을 조용히 살피면 모두가 스스로 터득된다(萬物靜觀皆自得)'함이 있다. 위 시는 이 시구와는 아주 대조적인 듯하다. 얻었다(得)와 비어있다(空)는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비어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물을 보게 때문에 오히려 사물을 사심없

"정보전시관 제기능 살리려면 관리·연구인력 양성 급선무"

조계종 성보위 '문화재특별법' 등 의견일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5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정보전시관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물보존처리시설 확충, 전시환경 개선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남철교수(고려대)는 "정보전시관의 박물관 등록여부는 성보문화재를 관리 연구 보존할 전문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동국대에 성보문화재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종단차원에서 전문인력 배출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보보존위원 대부분은 사찰에서 문화유산은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식은 정무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종단의 연수교육에 성보문화재관련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전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비지정 성보문화재에 대한

종단지정 등 대처방안도 논의됐다. 올해만도 10건의 성보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보도난과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각 사찰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종단차원에서 성보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임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임학수(조계종 문화부장)는 "관료의 3~5%를 불교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 성보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 성보보존위원들은 "여론에 편승해 근시안적인 복원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고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統和 28년' 명문 뚜렷 '국보급'

군산 성흥사 발견 '청동보살상'의 가치

66cm 크기·솜씨 정교

군산 성흥사에서 발견된 청동관음보살상 2구 중 눈에 띄는 것은 대좌를 포함 전체높이 66cm, 불상높이 52cm의 청동관음보살상. 고려불상으로는 드물게 팔각의 이등기단 뒷면에 '성거산천성사통화이십팔년(聖居山天聖寺統和二十八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중요하다. 통화28년은 중국 요(遼)나라의 연호로, 고려

현종1년 곧 1010년에 해당한다. 16엽의 길쭉한 연꽃대좌 위에 놓여있는 보살상은 오른손에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불상을 새기고 있어 관음보살상을 알 수 있다. 도톰한 볼과 날씬한 콧날, 가늘게 뜬 눈 등은 세련되면 서도 단아한 고려시대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다른 보살상 역시 뒷면에 두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관음보살상이다. 크기는 전체높이 37cm, 불

상높이 31.5cm, 지름 10.2cm. 1994년 무너진 대웅전 대신 새로 원통전(관음보살상)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던 중 발견됐다. 현지를 답사한 사찰문화연구원은 "고려보살상 가운데 조성연대와 조성사찰을 확인시켜주는 명문이 있는 예는 흔치 않다"며 "2차로 되는 규모나 단아한 양식으로 보아 국보급 유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성흥사 주지 송철스님은 "보존 가치가 있는 성보라면 국가 지정 절차를 밟아 보존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불교미술대전 일정 확정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의 불교미술대전이 내년 10월 14일~27일 공평아트센터로 확정됨에 따라 작품 접수가 9월 14일부터 19일로 결정됐다. 회화 조각 탱화 서예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불미전의 응모원서교부는 9월 7~16일, 입상작 발표는 내년 9월 24일이다. 문의 (02)739-1830

22일까지 통일서예대전

제1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이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서울시립

문화 소식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대전에는 대상을 받은 백종춘씨의 예서 대련작품을 비롯 입상작 340여점이 전시된다. (02)730-4846

친불동요 창작곡 5집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찬불가 테이프를 주로 제작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5집을 냈다. 이번 5집에는 '즐거우 우리절' '108열주' '그대로 돌아오' '한나음' '보리슬

의 관음새' 등 어린이들의 해맑은 불심을 표현한 동요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5집은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대한불교어린이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의 연수회 교재로 사용된다. (02)730-7525

선시화집 '세월을..'

대인 문재현법사(광주 삼일선원 대표)가 현장거사와 함께 선시화집 <세월을 북채로 세상은 북삼아>(바로보인)를 펴냈다. '선심' '별도' '얼화미소' 등 짧막하면서도 심오한 뜻을 담은 선시 80수의 시가 현장거사의 선화와 함께 실려있다.



법주사앞 조각공원 탐방객에 '인기'

충북 보은군 법주사앞에 자연녹지를 이용한 대규모 조각공원이 들어서 법주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일 출품작가와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및 표지석 제막식을 가진 조각공원은 3천여평의 친디밭에 '과거 현재 미래(청주교대 김지택 교수 작)' 등 대학교수와 조각가 등의 청동 및 화강석 조각작품 28점이 전시되어 있다.

공 고

지금까지 **삼론종** 종단분규를 지켜보신 대덕스님! 그리고 본 종단스님과 사부대중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억척과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고 같은 연유를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증명('97.10.28)을 보낸지 40여일이 지나도록 회답은 커녕 전화도 한통화없어 내용증명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공고하오니 읽어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 결 문

서울고등법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94나21032 직무정행배해배제등
-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삼론종(大韓佛敎三論宗)
 - 주지 ● 현 2동 5●9의 2 ● 우 ● 정 사 대표자 총무원장 이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태 ●
- 피고, 항소인 손 성 수 (孫 性 洙)
 -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의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용
- 최 종 종 결 1995. 3. 28.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6. 2 선고, 93가합18745 판결
- 주 문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발송한 3회 내용증명중(내용상 9월 24일자만 공고합니다)

歸依 三寶하옵고 其間 法體大安하시며 境內두루 平安하신지요? ●池 貨道도 無故하니 是快우입니다. 然而那 스님이 貨道한데 加한 受侮를 貨道는 前生의 業으로 생●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님! 過去야 如何한 이제부터는 스님이야 貨道나 徐徐이 人生終末을 告할때가 되었으니 小僧과의 목은 앙금을 씻을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스님! 小僧은 스님을 尊敬하는 뜻으로 進言드리오니 適히 언짢게 생 ● 마시고 서울高法4나第 2102號를 다시 읽어보시고 宗●協議會 會長職을 그만두시고 草野에 묻혀 매물지 않은 스님들께 讓步하시고 더 이상 宗● 스님들을 우롱하지 않는것이 스님을 爲한 妙策인가 싶으니 宗徒나 一般信徒에게는 方便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天●宗이나 三論宗 또는 小僧과 스님의 上佐에게 取한 잔치를 부리지 마시고 더 이상 덕높으신 宗● 스님들에게까지 愚弄한다는 것은 僧團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모록 健康에 留意하시고 侍奉에 邁進하시기를 祈願드리며 蕙蕙 亂筆을 씁니다.

西配 1997년 9월 24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원포리 80
대한불교 삼론종 중경
임오사 주지 홍 지 (홍지) 합장
충청북도 주시 현 2 동 5 9-2.
우 리 사
주 지 이 봉 스님 귀하
본 우편장은 서기(1997년) 9월 24일
동기 내용 2번 주된으로 남고하여 발송
윤문 두지 기 관

이것은 거짓말이나 부인도 못할 것이니 다음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법 판결문과 같이 1심 2심 소송비용을 방위등측 변호사에게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측에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등록된 사찰현판을 내리기 바랍니다.
- 종단협의회는 귀하측에서 등록하였으니 그 명위를 해임재규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받았으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하니 금년(1997년)내로 이행하고 지상에 사과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행치 않을시는 몇가지든지 걸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1997년 12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정정 해암(학암) 재규 합장